칼 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전남 새천년 인재육성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고

지난 6월 18일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있는 전남도 도청 왕인실에서 전남 새천년 인재육성 비전 선포식이 있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 교육감, 최일 동신대 총장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과 대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5백만 향우(鄕友)들을 대표하는 조직인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상임자문위원으로 이종덕 회장과 재경 시군(市郡) 향우회장 등과 함께 12명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행사장인 왕인실 오른쪽 벽에는 왕인, 장보고, 서재필, 김대중, 조정래, 임권택부터 요새 떠오르는 별 미스트롯 진(眞) 송가인까지 전남이 배출한 12인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어느 지역인들 전국적인 유명한 인물이 없겠는가만은, 여기 12인에 포함되지 못한 인물들도 많이 생각났다. 왼쪽 벽에는 오늘 행사의 주제와 추진 프로젝트들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새천년 인재육성 비전은 혁신인재가 이끄는 으뜸전남이고, 목표는 전남형 혁신인재 1만 명 육성이다. 새천년 인재육성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9대 중점사업은 청소년, 청년, 도민 분야 별로 3대 사업씩 추진한다.

첫째, 청소년 분야는 대한민국 미래주역 '전남스타 100인' 육성, 청소년 스텝업(Step Up) 프로젝트, 청소년글로벌 캠프 운영 등 3대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청년 분야에서는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으로 미래를 여는 청년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로 40개 팀을 공모하여 지원한다.

셋째, 도민 분야에서는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전남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전남 혁신 리더스 아카데미' 이름으로 전남인 아카데미, 지역공동체 리더스 아카데미,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등을 운영한다. '전라남도 명인(名人)·명장(名匠) 제도'를 운영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전남은 부족함이 있다'고 축사했는데, 많은 함의(含意)를 내포(內包)하고 있는 뼈 있는 말이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전남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정치적으로 소외(疏外)되 있다'고 축사를 했다.

전남은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有人島), 무인도(無人島) 섬들이 많고, 아직도 농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도(農道)다. 농업과 농민이 천하의 큰 근본이다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커다란 깃발을 앞세우고 농악(農樂)을 하던 동네 어른들을 따라다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든다. 농업은 비중도 아주 작아지고 농민은 인구 수도 적고 고령화되어 있다. 슬프게도 농촌은 피폐화되어 가고 마을은 공동화(空洞化) 되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모든 것이 현기증 나는 속도로 변화하고 변혁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지역이든, 국가이든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과 제도, 관습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도전과 혁신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힘이다, 사람이 중심이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미래는 사람 우선, 사람 중심시대이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청소년, 청년, 도민을 미래 전남 발전의 중심축에 놓고, 정책 목표와 실천 과제를 설정하고 선포한 일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으나 아주 잘한 일이다.

다만 이런저런 사유로 고향을 떠나서 타향 객지에서 살고 있는 출향(出鄕) 향우들이 인구 수(數)도 많고, 재력가도 적지 않게 있고, 애향심이 강한 분들도 많으니, 민·관·학(學)·향(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로나 기구를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건의를 부족한 향우의 한 사람으로서 드린다.

社 說

사학비리 발본색원해야 한다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이 지지부진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최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교수들이 교육부를 향해 서명을 모아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간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교련은 지난 7일부터 서명을 받았다. 17일 기준으로 서명을 받은 지 10일 사이에 1100여명의 동의자를 확보했다. 국민감사는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서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교련에 따르면 17일 이후 접수된 서명과 이메일 등 원본이 아닌 형태로 접수받은 건수도 다수다.

이들은 감사원에 ▲교육부가 감사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조치 및 처분을 했는지 ▲감사결과 시정명령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감사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는지 ▲교육부와 학교법인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교련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가 감사한 32개 사립대 중 모든 대학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으나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건 뿐이다.

교육부 감사관실이 그동안 시행한 대학 감사 결과는 법대로 집행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재단법인과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교련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해 사학 부정비리가 발본색원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신문으로배우는 **오늘의 명언**

"당신이 행한 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라.
허나 당신이 받았던 호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라."
Be silent as to services you have rendered,
but speak of favours you have received.

– 세네카 –

독자투고

때 이른 무더위, 폭염 시 행동요령 미리 알아두자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장기화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다.

일 최고기온이 35℃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은 폭염경보를 발하게 되는데 이때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것이 온열관련 질환(열경련, 열탈진 등)이다.

이러한 온열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라디오나 TV의 기상뉴스에 주목하고, 또한 가족 중에 가료중인 환자가 있다면 수시로 연락해 열사병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 배포한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이다. 모든 주민은 반드시 숙지해 올 한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첫째,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한다.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격렬한 운동을 삼가고, 노약자, 어린이는 시원한 장소로 더위를 피한다. 외출 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피부를 보호하고, 가급적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와 잦은 물 섭취,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갖는다.

식사는 육류, 생선, 잡곡, 신선한 야채 등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과 탄산·알코올·카페인 음료는 피한다.

물은 가급적 끓여서 마시고 손발을 깨끗이 한다.

셋째,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한다.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한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잠들기 전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한다.

넷째, 만일의 정전사태에 대비한다. 정전 시 사용할 손전등, 비상식음료, 손부채 휴대용라디오 등을 준비한다.

실제 정전이 되면 한전(국번 없이 123)에 신고한 뒤, 전원차단기를 내리고 모든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빼둔다.

다섯째,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잠들기 전 심한 운동은 피하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한다. 또한 카페인 함유음료나 정신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드라마시청, 컴퓨터게임 등은 삼간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간단한 일을 하거나 책일 읽는다.

임영진 / 화순능주119안전센터 소방위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대표전화 (062) 229-6000
편집국 (062)222-5547
팩스 (062)222-5548
광고국 (062)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